2024학년도 수능 D-50일… 도교육청, 준비 전략 안내

부족한 영역 보완·집중해야

"지망 대학 고려 맞춤형 공부 필요
EBS 인터넷 강의 · 교재 참고해야"

수능 50일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막바지 수능 준비 전략을 안내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은 기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9월 모의평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더불어, EBS 수능교재에서 나온 그림과 도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50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시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학생이나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50일이 매우 짧게 느껴질 것이라며, 수능 50일을 전략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 공부를 위한 시간으로 50일은 결코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 한 달을 남겨 놓고도 반수를 결정하고 공부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재학생들에게 50일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수시 원서접수에 집중했기 때문에 상대적 허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추석 명절 등으로 인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탓도 크다고 했다.

이에 공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집중한다면 50일 동안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수능 50일 준비 방안을 소개했다.

▲지망 대학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필요

수능 공부는 지망 대학의 입시전형에서 반영하는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망 대학을 몇 개 선정해 해당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확보할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고,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아쉬운 학생들은 출제경향과 유형을 꼼꼼히 점검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올해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수능 출제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문제에 대비하는 전략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정한 난이도의 문항을 풀이 시간을 고려해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참고

올해 수능 시험은 EBS 수능교재 및 강의를 연계해 출제되는데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50%수준이다. 평가원에 의하면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능 준비를 할 때는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특히 EBS교재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을 눈여겨 보고, 문항 및 지문의 핵심 제재나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본 개념이 수록된 교재로 단권화

지금부터는 문제 풀이를 할 때도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나 EBS 교재를 활용해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험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많은 문제집을 풀고 새로운 유형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 자신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50여 일 남은 지금은 기본 개념이 수록된 문제집(EBS 교재 포함)을 한 권 선택해 단권화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수능 직전에 해당 문제집의 목차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9월 모의평가도, 수시 원서접수도 끝났다. 수능 선택과목도 모두 결정됐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신경쓸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본고사가 남아 있어 수능에만 집중하기가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실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학습으로 도내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가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수능 3년 차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등이 절대평가 과목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진로전담교사 및 학교관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진로체험(교육)지원단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주목'

도교육청, 남원서 진로체험지원단 체험 연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진로체험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진로전담교사 및 학교관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진로체험(교육)지원단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단위학교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이에 남원지역 진로체험처 대표자들의 특강과, 목공·옻칠 등 남원의 특색있는 진로교육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원옻칠공예관 관장이자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박강용 관장은 특강에서 "창업체험 중점학교인 남원제일고와 남원옻칠공예관, 남원시청 간 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재 기술 전수 및 지역 인력 양성, 문화 산업 확산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행산천문체험관 장현근 관장은 "전형적인 산촌마을인 상신마을(하늘별마을)은 주민이 주체가 돼 숲체험 등 생태주의 감수성 함양 교육을 하고 있는 최고의 학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된 진로체험 교육의 실천사례를 통해 진로체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지역의 진로체험처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와 연계해 궁극적으로 창업체험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ADHA 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높아

도교육청, 만족도 조사 결과 88.5%가 '학생에게 도움 됐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중학생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ADHD 학생에 대한 진단과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30일부터 15일간 ADHD 치료비 지원 학생의 학부모 및 담임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5%가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치료 및 상담 이후 '수업시간에 더 잘 집중한다' 74%, '과제수행이나 놀이(활동)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집중을 더 잘한다' 78%, '과잉행동이 줄었다' 78%, '공격적 행동이 줄었다' 77%로 ADHD 치료 및 상담 이후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격적인 말이 많이 줄었다',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늘었다', '안정감이 생겨 수업시간에 집중을 잘하게 됐다'등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행동이 개선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은성 기자

창의융합아이디어 학습공간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26일 사범대학 진리관 1층에 학생들의 창의 융합아이디어 학습공간인 'HATCH 라운지' 개관식을 가졌다. 사진은 박진배 전주대 총장과 LINC 3.0 사업단 관계자들이 이날 열린 개관식에서 테이크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추석 연휴 교육시설 · 학교 주차장 660곳 개방

추석 연휴기간 학교 주차장이 개방된다.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교육시설 및 학교 주차장 660곳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것이다.

개방 대상 기관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이며, 개방 시간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주차장 개방은 지역주민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한 전북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된다.

다만, 학교(기관)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 관리 인력이 없으므로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시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인 만큼 이용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베트남·탄자니아 4000억 규모 교량사업 평가기관 선정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내달 1차 · 12월 2차 현지조사

베트남에 건설된 밤콩교량(사진 왼쪽)과 탄자니아 뉴샐린더교량.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원장 문경연)이 우리 정부의 대외 유상원조 사업으로 베트남과 탄자니아에 건설된 4,000억원 규모의 교량 사업 평가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역 랜드마크형 교량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지로서의 가치와 함께 공여국인 한국에게는 교량건설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홍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교량분야 지원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지원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해짐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을 공모했다. 이 공모에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이 선정된 것.

이에 따라 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교량 사후평가사업 참여 연구팀으로서 베트남과 탄자니아 두 국가의 교량 평가를 맡게됐다.

베트남의 주 평가 대상인 밤콩교량을 비롯해 빈틴, 틴롱 교량을 평가하고, 탄자니아에서는 주 평가 대상인 뉴샐린더교량과 말라가라시교량의 평가를 진행한다. 베트남 밤콩교량은 호치민 남부 메콩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에 건설된 곡물 운송의 핵심 인프라며, 탄자니아 뉴샐린더교량은 다르에스살람 지역에 랜드마크로서의 영향력과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밤콩교량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베트남 재무부에 2억 달러의 차관을 공여함으로써 건설됐으며, 탄자니아 뉴샐린더 교량은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랜드마크 교량이다.

한편, 이 교량에 대한 평가를 맡은 문경연 원장은 이번 사업의 책임자로서 건축 및 교량,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 10월 1차 현지조사에 이어 12월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내달 5일 '2023 W직무페스타'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오는 10월 5일 문화관 일원에서 '2023 W직무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 기업을 소개하고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통해 취·창업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졸업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천현 총장은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063-290-1948, 195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과별 평가문항제작 역량강화 연수

교사들의 평가문항제작 역량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2~27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고등학교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취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교과별 평가문항제작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중앙교육연수원의 원격 과정인 과정중심평가에 기반한 학생평가 컨설팅(5차시) 연수를 사전에 수강한 교사들이다.

이번 연수는 총 11과목에 대해 진행, △22일 수학, 일반사회, 역사 △25일 국어, 지리, 윤리 △26일 영어, 생명과학, 지구과학 △27일 물리, 화학 교과까지 평가문항 제작 연수가 이뤄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평가문항제작 연수를 매년 운영하고, 연수 교과목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항공 · 드론 분야 혁신융합 인재양성 본격

교육부 408억 규모 혁신융합대학사업 참여대학 선정
CArDIo 사업단 출범… 항공우주공학과가 총괄 주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항공·드론 분야 혁신융합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항공·드론 첨단 분야에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사업단이 최근 출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사업단의 공식 명칭은 '전북대학교 CArDIo(College of Aero-Drone Innovation and Convergence) 사업단(단장 강승희)'이다. CArDIo는 '심장'이라는 뜻으로 항공·드론 산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실무형 혁신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표준교육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가 CArDIo 사업단의 총괄 주관을 맡고, 기계공학과와 소프트웨어공학과,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환경공학전공),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자원·에너지공학전공), 스마트팜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생물산업기계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등의 학과가 참여해 항공·드론 분야 고급 인력 양성에 협력하게 된다.

한편, 전북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의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4년간 408억 원과, 경상국립대와 지자체(경남, 전남) 대응자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단 소속 학생들은 전공과 관계없이 교과목 수준에 따라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나노디그리), 융합플랫폼(학생설계) 전공/부전공, 융합·연계 복수전공 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단은 연간 2,170명 이상의 항공·드론 첨단 분야 인재를 매년 양성하고 지역 내 기업들에 고급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승희 사업단장(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은 "5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연구 강점을 살려 항공드론시스템(전북대), 항공드론AI빅데이터(서울대), 항공드론SW(경상국립대), 항공드론IT(건국대), 항공드론응용실무(전남도립대) 등의 융합·연계전공이 개발·운영될 계획"이라며 "5개 대학의 혁신융합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 항공·드론 표준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항공·드론 분야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